

멍때림은 마음 심표, 귀 기울여
듣는 건 모두의 소중한 약속

왜 멍때리면 안돼요?

장우일

1

어긋난 시선

어긋난 시선

구름 배를 탄 개미 선장

창밖의 구름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분수 문제가 적힌 칠판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그 구름을 따라갔다. 흰색의 부드러운 덩어리가 마치 누군가 손으로 빚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처음엔 배 같았다. 그다음엔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민준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아, 저게 배다. 진짜 배 같은데?

펜을 들었다가 놔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가 멈췄다. 어쩐지 손가락이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보다, 저 구름 배에 누가 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

개미다. 개미 선장이 저 배를 끌고 간다.

민준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개미 선장은 누구일까? 아마도 검은색 개미일 거다. 아니면 빨간 개미? 아니야, 금색 개미가 낫겠다. 그 개미는 눈이 반짝반짝한 검은 구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주 작은 갑옷을 입고 있을 거다. 그리고 손에는... 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 칼? 아니면 지팡이?

지팡이다. 반짝이는 금색 지팡이.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구름 배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개미 선장은 그 지팡이를 들고 구름 배의 갑판에 서 있었다. 바람이 구름 돛을 부풀렸다. 파도는 없었다. 구름 바다는 그냥 하얀 안개처럼 부드럽게 흘러갔다. 개미 선장은 하늘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 보물? 아니면 잃어버린 개미 왕국?

"민준아!"

민준이의 몸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실이 한 점의 빛처럼 뚫고 들어왔다. 구름 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개미 선장도 없었다. 남은 것은 칠판 앞에 서 있는 김지혜 선생님의 얼굴뿐이었다.

"네?"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섞여 있었다. 실망? 걱정? 아니면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아, 네... 계산하고 있었어요."

거짓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진실은 '구름 배를 타고 개미 선장과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였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또 그 표정을 지을까?

"계산? 정말?"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반 전체가 조용해졌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쏠렸다. 민준이는 책상 위에 있는 자신의 공책을 봤다. 분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펜은 책상 옆에 떨어져 있었다.

"창밖만 보고 있었잖아. 또 멍때리고 있었어."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멍때린다. 그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다. 멍때린다는 게 뭐가 나쁜 거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해. 알겠어?"

"네, 선생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시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구름은 여전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개미 선장은 어디로 간 걸까? 그 배는 지금 어디쯤 향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분수 계산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빨개진 얼굴과 질문

민준이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얼굴로 몰려온 것 같았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이봐요.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며 멍때리고 있다니요."

김지혜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매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들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시선을 내려 책상 위의 교과서에 고정했다. 하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검은 점들일 뿐이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멍때리는 습관이 계속되면 학교 생활 전체가 힘들어질 거고요."

민준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상상 세계가 마치 누군가 손으로 집어던진 공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구름 속에서 펼쳐지던 그 아름다운 세계.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나왔다. 왜? 왜 멍때리면 안 되는 거야? 상상하는 게 뭐가 나쁜 거야? 그 질문은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알겠어요, 선생님."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알겠어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그 의문은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자신을 자꾸만 괴롭혔다.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칠판으로 돌아가 수학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칠판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보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옆자리의 이지훈이가 살짝 몸을 기울여 민준이를 바라봤다. 지훈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친구가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을 본 것이었다. 지훈이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괜찮아?"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그저 미약한 미소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오후 3시 30분. 하교 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이의 엄마 박선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김지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박선영님, 이번에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혹시 집에서는 어떤가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아직 민준이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엄마와 자신 사이에 처음으로 '멍때림'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려고 했다.

엄마의 한숨, 민준의 억울함

오후 3시 정각, 박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학교'라고 표시된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일단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선영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김지혜입니다. 민준이 담임선생님이에요."

박선영은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직장 책상에 앉아 있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려는 본능이었다.

"네, 선생님. 뭔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오늘 수업 시간에 민준이가 좀 신경 쓸 만한 모습을 보여서요."

박선영의 손가락이 경직되었다. 신경 쓸 만한 모습이라는 게 뭔가. 아이가 다친 건 아닐 테고, 다른 아이들과 싸운 건 아닐 테고, 그럼 뭔가.

"어... 어떤 모습인데요?"

"음, 수업 중에 창밖을 보며 멍때리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멍때린다. 박선영은 그 단어를 반복했다. 멍때린다. 그건 집중력이 없다는 뜻이었다. 집중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 공부를 못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박선영의 머릿속에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 결핍 문제가 많잖아요."

집중력 결핍. 그 단어가 박선영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건 병이었다. 치료가 필요한 문제였다.

"네,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박선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아래로는 도시의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자기 갈 길을 정확히 알고 가고 있었다. 누구도

멍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

저녁 6시 30분, 박선영은 민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온 후 집에 도착했다. 아이는 여전히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엄마의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민준아,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음... 수학기랑 국어, 과학..."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뭘 했냐고."

민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 차가운 톤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다.

"음... 그냥 수업했는데?"

"선생님한테서 전화 받았어. 넌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며 멍때렸대?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계속 그랬다고?"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것 때문이구나. 그런데 왜 그게 나쁜 건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갔다.

"근데...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생각? 수업 시간에 뭘 생각해? 수업에 집중해야지 딴생각을 하니?"

박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앉으며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저는 그냥 구름을 보다가 생각이 났던 거고..."

"구름? 구름을 보고 있었다고?"

박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그 한숨 속에는 실망, 걱정,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민준아, 엄마 말을 들어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야. 공부하는 곳에서 구름을 본다고? 그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선생님도 걱정하시고, 엄마도 걱정돼. 넌 왜 수업에 집중을 못 하니?"

민준이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상이 나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구름을 보고 상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 그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할까.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할까.

"근데...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 할 때야. 넌 4학년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박선영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이의 집중력 문제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뭔가일까.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거실에 남겨진 민준이는 신발을 벗은 채로 서 있었다. 엄마의 한숨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자신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상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모순 속에서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그 밤, 박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김지혜 선생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다. 민준이의 집중력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2

오해의 벽

오해의 벽

교무실의 대화

김지혜 선생님은 교무실의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손에 들린 휴대폰의 화면을 몇 번이나 꺾다 꺾다를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박선영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가 연결되기까지의 몇 초가 유독 길게 느껴졌다. 김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미 정리해두었지만, 막상 목소리를 낼 순간이 되니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다. 학부모와의 통화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특히 아이의 부정적인 면을 전달해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어, 선영 씨? 저 김지혜입니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바쁜 듯한 배경음이 들렸다. 아마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았다.

"아, 선생님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네, 잠깐 괜찮으세요? 민준이 애기로 전화드렸어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순간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다. 아이의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혹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였다.

"네, 말씀해주세요. 뭐가 있었어요?"

김지혜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다.

"사실 최근 한두 주일 동안 민준이가 수업 중에 자주 멍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든 수학 수업 중에 창밖을 보면서 한참을 딴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박선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멍때린다니요? 민준이가?"

"네, 그래서 수업을 마친 후에 민준이에게 집중을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아이가 자신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지혜의 말투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말이 너무 딱딱하게 들릴까봐 걱정했다.

"그렇군요. 저도 집에서 봤어요. 요즘 자기 방에서도 자주 멍때리곤 해요. 숙제를 하다가도 갑자기 멈춰있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뺐다 집었다를 반복하고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게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민준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집중력 결핍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중력 결핍이요? 그럼... 병원을 가봐야 하나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민준이가 언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집중을 못 하는지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는 자신의 말이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민준이의 행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있을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더 신경 써서 봐야겠네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민준이가 어떤 상황에서 멍때리는지 보셨어요?"

"음,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대부분 창밖을 볼 때예요. 특히 구름을 보면서 말이예요. 마치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수업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박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구름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답답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사고 활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이를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어떻게 들릴지 걱정했지만, 동시에 아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긴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딴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가요?"

박선영의 질문은 타당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김지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준이에게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혹시 민준이가 집중을 못 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수업이 너무 지루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걸려있다든지 말이에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루하다고 해서 멍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재미없어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입장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김지혜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선영 씨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서도 민준이가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할 때는 휴대폰을 치운다든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박선영의 질문은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저도 수업 중에 민준이를 더 자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멍때리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불러서 집중을 유도하도록 하겠어요. 또한, 수업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주어서 아이들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민준이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건 아닐까요?"

김지혜의 질문은 깊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민준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친구들과만 놀아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일 정도예요."

박선영의 대답은 안심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만약 친구관계가 좋다면, 민준이의 멍때림은 단순히 집중력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집중력 향상에 집중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김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운동장의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노고 있었다. 그 중에 민준이가 보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곤 했다.

그 순간 김지혜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편, 박선영은 회사의 책상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졌다. 민준이의 멍때림 문제는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민준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민준이가 창밖의 구름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상상의 세계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꾸중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고,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구름들이 살아있었다. 하얀 솜처럼 부드러운 구름, 용처럼 날카로운 구름, 성처럼 웅장한 구름들이 말이다.

민준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엄마와 선생님이 자신의 멍때림을 이렇게까지 걱정한다면,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움직였다.

"오늘의 구름"

그는 제목을 썼다. 그리고 오늘 본 구름의 모양을 그려나갔다.

민준이의 방, 구름 관찰 일기

민준이의 방은 저녁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책상 위의 작은 스탠드까지 밝혀냈다. 그의 손에는 새 노트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누군가 발견할까봐 그렇게 비워둔 것이었다.

민준이는 문을 조용히 닫고 책상에 앉았다. 엄마의 발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가 점점 멀어졌다. 그제야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썼다. '구름 관찰 일기'. 그 아래에는 오늘 날짜를 적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봤던 구름들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자신을 꾸짖을 때도 그 구름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에서 천천히 흘러가던 그 하얀 덩어리들은 마치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구름은 자신을 방해하지 않았다.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이건 비밀이어야 했다. 엄마가 알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았다. '공부할 시간에 뭐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건 공부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다.

'오늘 본 구름은 용처럼 생겼다. 아니, 정확히는 용이 하늘을 헤엄치는 모습이었다. 꼬리가 길게 흘러내렸고, 뿔은 뾰족했다. 그 용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혹시 비를 데려오러 가는 걸까?'

글을 쓰면서 민준이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수업 시간, 그 창밖의 풍경이 다시 생생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없었다. 엄마의 한숨도 없었다. 그저 자신과 구름뿐이었다.

'구름은 절대 같은 모양으로 있지 않다. 계속 변한다. 그건 마치 내 생각처럼. 내 생각도 자꾸 변한다. 엄마는 그걸 "판생각"이라고 부르는데, 난 그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 구름도 계속 변하는데, 구름을 보면서 "집중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글씨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어깨 너머를 들여다볼까봐 몸을 굽히며 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는 의지 같은 것.

책상 옆 선반에는 그동안 몰래 그린 그림들이 숨겨져 있었다. 구름의 모양을 따라 그린 것들, 구름 속에 있을 법한 세계들. 성이 있는 구름, 섬처럼 떠 있는 구름, 파도처럼 흘러가는 구름들. 각각의 그림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

'이건 내 세계다. 여기서 나는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 누가 나한테 "집중해"라고 하지 않는다!'

민준이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구름들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구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차올랐다. 이게 바로 자신이 느끼는 것이었다. 이 감정, 이 설렘, 이 편안함.

다시 노트로 돌아왔다. 글씨가 조금 더 굵아졌다.

'엄마는 내가 멍때린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멍때리는 게 아니다. 나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아닐 뿐이다. 그게 문제일까? 정말로?'

손가락이 다시 떨렸다.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엄마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자신의 머리 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하지만 이 노트 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내일도 구름을 봐야겠다. 그리고 그 구름을 여기 적어야겠다. 이건 내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규칙이다.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이 노트를 펼치고 구름을 그리고 생각을 쓸 거다.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집중해"라고 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의 말이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에서 엄마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곧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갈 것 같았다. 민준이는 재빠르게 노트를 닫고 선반 뒤에 숨겼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웠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밀었다.

"민준아, 벌써 자려고?"

"응. 피곤해."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그 한숨에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엄마."

문이 닫혔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는 다시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거기에도 구름이 보였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그 구름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집중하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내일 학교에 가면 이지훈이가 또 뭔가 물어볼 것 같았다. 최근에 자신이 자꾸 판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 싶기도 했다. 이지훈이가 자신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상관없을 것 같았다. 자신은 이제 자신의 구름 관찰 일기가 있으니까.

친구와의 어색한 거리

쉬는 시간이 되자 이지훈은 민준이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제 본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꼭 민준이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따라다니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지훈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민준, 어제 봤어? 그 고양이 영상 말이야."

이지훈은 민준이의 어깨를 톡톡 쳤다. 민준이는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오늘따라 구름이 유난히 많았다. 하나의 구름은 마치 용처럼 보였고, 그 옆의 구름은 성처럼 솟아 있었다. 민준이의 눈은 그 구름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민준?"

이지훈이 다시 한 번 불렀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딘가 멀리 있었다. 마치 몸은 교실에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 뭐?"

"아, 뭐 아니야. 그냥... 내가 얘기하던 거 들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이지훈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밝던 눈이 조금 흐려졌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자신이 신나서 얘기를 꺼내면 민준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으로 있었다.

"고양이 영상 말이야. 어제 본 거."

이지훈은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신나는 톤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조금은 서운한 기색이 묻어났다.

"아, 응. 들었어."

민준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민준이의 입술은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아니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럼 뭐가 재미있었어?"

이지훈이 물었다. 이걸 일종의 시험 같은 것이었다. 민준이가 정말로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 고양이가..."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양이가 뭐?"

"고양이가... 뭔가 했어."

이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박혔다. 그것은 화라기보다는 서운함이었다. 자신이 신나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지훈은 처음 느껴보고 있었다.

"민준, 너 요즘 자꾸 딴생각하는데... 내 말이 재미없어?"

이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그제야 창밖에서 눈을 떼고 이지훈을 바라봤다. 이지훈의 얼굴에 떠 있는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이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상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지훈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다.

"아니야. 재미있어."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이지훈은 민준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밝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

이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민준이는 이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다. 민준이의 가슴속에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이지훈이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민준이의 머리를 맴돌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지훈이 민준이에게 조용히 종이를 건넸다. 그 종이에 "나중에 얘기 있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지훈이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자신을 꾸짖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과의 우정을 끝내겠다는 말일까?

3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

이지훈의 비밀 이야기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이지훈이 민준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진지한 기색이 묻어났다. 민준은 이지훈의 손을 따라 교실 뒤쪽 창가로 끌려갔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자리였다.

"민준, 잠깐만."

이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친구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이지훈의 어조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창밖의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 햇빛을 받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의 모양이 자꾸만 변했다. 처음엔 용처럼 보이다가 이내 성처럼 변했다. 그리고 다시 파도처럼...

"민준? 들어?"

이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민준의 귀는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구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창밖의 세계는 교실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크게 민준을 부르고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의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봤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본 그 표정이었다. 멍때리는 표정.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표정. 이지훈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나 정말 오래 고민했어."

이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마치 민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민준의 눈동자는 창밖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서 구름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깊게 숨을 쉬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모아둔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꺼내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적였는지 민준은 알 수 없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민준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사실 나... 요즘 집에서..."

이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누군가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그 창밖의 구름처럼 흘러가 버린 것 같았다. 이지훈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

이지훈은 한 번 더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더 크게. 하지만 민준의 눈은 여전히 구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지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신이 말하려던 그 중요한 이야기, 그 비밀들이 공중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지훈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패이기 시작했다.

"내 말 좀 들어 줄래?"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민준에게 닿을 수 있을까? 민준은 과연 이 순간, 자신의 친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까?

멈춰버린 대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여전히 떠들썩했다. 민준이는 이지훈과 함께 자신의 자리로 향했고, 이지훈은 어제 본 고양이 영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귀는 이지훈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민준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흰색과 회색이 섞인 그 구름은 마치 누군가의 손으로 그려낸 그림처럼 보였다. 그것은 용일까, 아니면 성일까. 민준이는 그 구름의 모양이 자꾸만 변하는 것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형태를 바꾸는 그 모습이 신비로웠다.

"어제 그 고양이 영상 봤어? 진짜 웃겨 죽겠더라.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자기 꼬리를 물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거울을 때리기까지 해!"

이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톤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손짓까지 섞으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다.

"민준, 들어? 진짜 재밌어!"

이지훈이 민준이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민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었다. 이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이지훈은 자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리액션이 좋으니까 민준이도 분명 재미있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을.

이지훈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짓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지훈은 더 중요한 것을 꺼내려 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민준, 사실 나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밝음이 사라지고, 무언가 진지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이지훈의 표정을 봤다. 그의 친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그런 표정이었다.

"응, 뭘데?"

민준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이가 자신을 바라보길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이의 시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지훈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연히 민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사실 나... 음..."

이지훈이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용기를 내서 시작한 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멍때리는 모습이었다.

이지훈은 계속 말했다. 자신의 비밀을 풀어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담아뒀는지.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고 있었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이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었다.

이지훈의 말이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다.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이지훈이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 민준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훈의 입이 닫혔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밝음이 사라지고, 무언가 깊은 상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지훈은 민준이를 바라봤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하지만 그 친구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훈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밝지 않았다. 그것은 포기의 목소리였다. 상처받은 목소리였다. 이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뒷모습이 민준이에게 보였다.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들은 책상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의 친구가 자신과 대화를 끝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준이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저 뭔가 불편한 감정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창밖의 구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름을 바라보는 민준이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지훈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 보였다. 비록 같은 교실에 있지만, 그의 친구는 이제 자신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멍때림이 단순한 딴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운한 친구의 뒷모습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실로 돌아온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있는 이지훈을 발견했다. 친구의 얼굴에는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이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준, 잠깐만 들어봐. 내가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꺼내려는 듯한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준이는 친구의 표정을 바라봤다. 이지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입술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응, 뭔데?"

민준이가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오늘따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 하얀 솜처럼 부드러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어떤 동물처럼 보였다가도 다시 성을 닮아 보였다.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그 구름 속 세계로 날아가고 있었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이지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멍때림이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 상태였다.

"민준!"

이지훈이 민준이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그제야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마치 먼 곳에서 돌아온 것처럼 초점이 맞지 않아 보였다.

"어?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 뭐라고 했어?"

민준이의 대답에 이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친구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지훈은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하려고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민준이에게만 먼저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창밖의 구름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지훈이 손을 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평소의 밝고 명랑한 톤은 사라지고, 어딘가 꺾인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는 친구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훈아, 뭐 있었어?"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준이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평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던 친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도 느렸다. 마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준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친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뭔가 슬픈 감정이 전해졌다.

민준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그 구름들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 이상한 답답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지훈이 자신에게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왜 친구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까.

민준이는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딴곳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생각이 민준이의 마음을 철저히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지훈의 싸늘한 뒷모습은 민준이에게 처음으로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민준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멍때림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과 후, 민준이는 혼자 남겨진 교실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지훈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도 느껴졌다.

민준이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학교 도서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이지훈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4

사서 선생님의 지혜

사서 선생님의 지혜

도서관의 피난처

도서관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민준에게 작은 위로처럼 들렸다. 복도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빛만이 남는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오늘따라 그 느낌이 더욱 절실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은 몰래 도서관으로 향했다. 교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지훈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무게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자신이 친구의 중요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도서관 안은 고요했다. 책장들이 벽처럼 서 있고, 창가의 책상들은 비어 있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그곳에 앉으면 밖의 하늘이 보였다. 오늘의 구름은 어떤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은 민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구름을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에서 무의미하게 움직였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의 햇빛이 조금씩 움직였을 뿐이었다.

최서연 사서 선생님은 책을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민준이의 뒷모습.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고, 머리는 창밖을 향해 있었다. 평소처럼 상상에 빠진 모습이 아니었다. 사서 선생님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이 아이의 멍때림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구름을 보며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멍때림도 있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현실을 놓치는 멍때림도 있었다. 오늘은 후자였다.

사서 선생님은 책장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다. 민준이의 얼굴에 떠 있는 표정을 읽으려고 했다. 그곳에는 혼란함이 있었다. 그리고 후회가 있었다.

몇 분이 더 지났을 때, 사서 선생님은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발걸음은 최대한 조용했다. 책장 사이에서 나와 민준이의 책상 옆에 섰을 때, 민준이는 그제야 돌아봤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아, 사서 선생님..."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죄책감이 묻어났다.

"책을 찾고 있었나?"

사서 선생님의 질문은 부드러웠다. 그것은 추궁이 아니었다. 단지 확인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서 선생님은 민준이 옆의 빈 의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곳에 앉았다. 민준이는 놀랐다. 보통 어른들은 자신이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물어봤다. 뭐 하고 있냐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하지만 사서 선생님은 다르게 반응했다.

"창밖이 보기 좋은 자리네."

사서 선생님도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도 다시 창밖을 봤다. 둘은 한동안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민준이는 이 창밖을 자주 보나?"

사서 선생님의 질문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구름을 봐요."

"구름을 본다는 게 뭐가 좋아?"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다. 어른들은 보통 멍때리지 말라고 했지, 왜 보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냥... 계속 바뀌어요. 구름이."

"그렇지."

사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구름이 두 번 나타나지 않아. 매번 새로운 거야. 그걸 보는 게 좋은 거구나."

민준이는 사서 선생님을 바라봤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근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멍때리면 안 된다고 다들 말해요."

"그래?"

"네. 선생님도 그러셨고, 엄마도..."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친구도."

사서 선생님은 민준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재촉하지 않았다. 단지 경청했다.

"친구가 뭐라고 했어?"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창밖만 봤어요. 친구 말을 안 들었어요."

민준이의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가 화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 멍때림이 친구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사서 선생님은 민준이의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이 아이가 이미 깨달았구나. 그것도 스스로.

"민준이, 멍때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건 네 상상력이 자라는 시간이야. 중요한 시간이지. 하지만..."

사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달라. 그때는 네 상상력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민준이는 사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닿고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준이의 질문이 나왔다. 그것은 간절한 질문이었다.

사서 선생님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먼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서 선생님이 민준이를 바라봤다.

"네가 정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싶다면, 귀를 열어야 해. 눈이 아니라."

민준이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귀를 연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는 듯했다.

"사서 선생님, 친구가 저한테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몰라요. 뭐였는지."

"그럼 물어봐야지. 친구한테."

사서 선생님이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이번엔 진짜 들을 거라고 말해. 그리고 들어줘. 정말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서관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사서 선생님은 일어났다.

"가 봐야겠네. 그리고 민준이..."

사서 선생님이 다시 민준이를 바라봤다.

"너의 상상력은 정말 소중한데. 그것도 잊지 마."

민준이는 사서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 따뜻한 시선 속에는 이해가 있었다. 정죄가 아닌 이해가.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교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이지훈을 찾아가야 했다. 그리고 귀를 열어야 했다. 정말로.

창밖의 구름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은 이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앞을 보고 있었다. 친구를 향해.

상상의 나라와 사서 선생님의 미소

도서관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책장의 등뼈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준이는 그 빛의 경계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 놓긴 했지만, 그의 눈은 페이지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고, 하늘 위의 구름들이 천천히 형태를 바꾸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구름이 용의 등처럼 구부러지더니 이내 성의 탑으로 변했다. 민준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마치 그 구름들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비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듯이. 그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책장 위에서 멈춰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멍때린다'고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가장 생생하고 활발한 세계였다. 그 구름 위에는 자신이 만든 왕국이 있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상상의 세계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최서연 사서 선생님이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비난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최서연은 민준이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창밖을 따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구름들을 몇 초간 관찰한 후, 천천히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이해하는 웃음이었다.

"저 구름, 뭐가 보여요?" 최서연이 물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용... 아니, 성이에요. 성이 변해서 이제 배가 되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잘 보이네요."

최서연은 그 말을 하며 민준이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펼쳐 놓은 책을 보았지만,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멍때린다는 말, 들었어요?" 최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네. 선생님이... 그리고 엄마도."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곤 해요." 최서연은 한 번 깊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말이에요, 민준아. 그 구름을 보고 있는 지금 너의 마음은 멎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깨어 있는 거야."

민준이는 최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른이 자신의 상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우리 뇌는 언제나 일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일하면 지쳐버려요. 마치 엔진이 계속 풀로 돌아가는 자동차처럼." 최서연은 손으로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 언제 쉬어요?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멎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숨을 쉬는 거야."

민준이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마음이 숨을 쉬는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다. "마음이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최서연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려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지훈이의 말을 들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최서연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말이에요. 그런데 넌 구름을 보고 있었어. 그게 지훈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서연의 입에서 나오니 더 무겁게 들렸다.

"멍때림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그때는 달라." 최서연은 민준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때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준이는 최서연의 말을 들으면서, 이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친구가 자신에게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런데 사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가 물었다. "구름도 보고 싶고, 친구 말도 들어주고 싶은데..."

최서연은 그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건 너 자신이 정해야 할 규칙이야. 언제는 구름을 봐도 되고, 언제는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균형을 찾는 것 말이에요."

최서연은 일어서며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한 번 물어봐 볼래?"

귀 기울이는 마음의 소리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가 민준을 감싸안았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하고, 그 먼지들을 따라가는 민준의 눈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멍때림이 아니다. 자책이다.

이지훈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돌아가던 친구의 어깨가 얼마나 축 처져 있었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민준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책등을 따라 그으며 생각했다. 친구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것 같았다. 용기를 내서. 그런데 자신은 구름을 봤다. 구름을.

"민준아."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최서연 사서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따뜻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선생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사서 선생님은 책장을 등지고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 옆에 앉았다. 어른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 것처럼.

"멍때리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

"네?"

"우리 뇌는 쉬어야 한다. 계속 뭔가를 하고,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 지쳐버린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 그게 멍때림이야. 뇌가 자신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

민준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지훈에게 한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런데 말이야, 민준아."

사서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이 묻어났다.

"우리가 혼자만 쉬는 건 괜찮아.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는 어떨까?"

민준이 사서 선생님을 바라봤다.

"친구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멍때리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그 친구에게 어떤 느낌일까? 친구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름을 본다면?"

그 말이 칼처럼 쏘았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이지훈이를 상처 준 거예요?"

"상처는 의도적인 것만이 아니야. 때론 무심한 것도 상처가 돼. 하지만 그걸 아는 것, 그게 중요해."

사서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멍때림은 나쁜 게 아니야. 진짜야.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시간일 때 빛나는 거야.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는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답이야."

사서 선생님은 일어서며 민준의 머리를 살짝 쓸어줬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엄마의 손길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따뜻했다.

"멍때림과 경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게 너의 과제야, 민준아. 자신만의 구름을 볼 시간도 필요하고, 친구의 말을 들어줄 귀도 필요해. 둘 다 소중한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커다란 책임감이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사서 선생님의 질문이 민준을 깨웠다. 민준은 시계를 봤다. 아직 방과 후 시간이었다. 친구를 찾을 수 있을 시간이었다.

"선생님, 전...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리고 민준아, 이번엔 진심으로 들어줘. 친구의 말을."

민준은 빠르게 일어섰다. 도서관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다. 사서 선생님은 여전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다.

복도를 달리며 민준은 생각했다. 이지훈이는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구름을 봤다.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차례다. 진심으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민준은 멈췄다. 이지훈이가 보였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뒷모습이 여전히 외로워 보였다.

"이지훈이!"

민준이 외쳤을 때, 친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할까. 자신의 진심이 전해질까.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알았기 때문이다. 멍때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청이 친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5

교무실의 심표

교무실의 썬표

바쁜 선생님의 짧은 휴식

교무실의 시계는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지혜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1학년 3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학부모 상담 기록, 다음 주 수업 계획안, 학교 행사 관련 공문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전에는 수업 5시간, 점심시간에는 학생들 지도, 오후에는 학부모 전화 통화와 행정 업무. 하루를 쪼개서 써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어제는 밤 11시까지 학부모 상담을 했고, 그 전날은 학교 축제 준비로 새벽 1시까지 잤다. 커피잔은 벌써 세 번째였다. 첫 번째는 아침 7시, 두 번째는 오전 10시, 세 번째는 지금. 커피의 맛은 이미 혀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쓴맛뿐이었다.

김지혜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놔다. 손가락이 떨렸다. 피로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다. 어제 박선영과의 통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민준이의 집중력 문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불안감을 더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자꾸만 밀려왔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다. 민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수업 중에 자꾸만 창밖을 보고, 자꾸만 딴생각에 빠지는 모습이 걱정되었다. 그것이 학교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전화를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화가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김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교무실 창밖으로는 학교 운동장이 보였다. 하교 시간이 지난 터라 운동장은 한산했다. 몇몇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민준이도 지금쯤 집에 가고 있을까.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까.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하늘로 향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얀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며 형태를 바꿔가고 있었다.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한 순간에는 솜사탕처럼 보였고, 다음 순간에는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는 용처럼, 그 다음에는 누군가의 얼굴처럼.

김지혜는 그 구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을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구름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봤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봤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처럼 보이는지 상상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교무실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복사기의 소리도, 밖의 자동차 소리도. 오직 구름과 하늘만 있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이 몇 분 동안 그녀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구름. 그것뿐이었다.

'아, 이게 멍때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김지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준이가 이것을 하고 있었구나. 이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멍때린다고 꾸짖었다. 집중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몇 분 동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복사기의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사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자신의 명상을 깨뜨렸다. 김지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의 서류 더미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오후 3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 3분이었다. 단 3분의 멍때림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김지혜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앉았다. 하지만 펜을 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민준이의 멍때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였다. 교무실 문이 열렸다.

"선생님!"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김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가 교무실 입구에 서 있었다. 숨이 찬 듯 가슴을 들썩거리고 있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로 달려온 듯이.

"민준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민준이는 교무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김지혜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동자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호기심? 아니면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 김지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준이가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가끔 멍때려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김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던진 질문이 정말로 순수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준이의 질문, 선생님의 미소

교무실의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김지혜 선생님은 책상 위에 쌓인 시험지와 학생 생활기록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어제 박선영 학부모와의 통화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다. 민준이의 집중력 문제, 수업 중의 딴생각, 그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떠올랐다.

선생님은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수업,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들이 머리를 무겁게 눌렀다. 그 순간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다. 흰 구름들이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모양을 바꾸며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다. 하나의 구름은 용처럼 보였다가 이내 사자의 얼굴로 변했다. 그다음엔 마치 누군가의 손을 맞잡은 모양이 되었다.

선생님은 그 장면에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 학교에 온 지 벌써 십 년이 넘었는데, 창밖의 구름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건 처음 같았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게 바로 민준이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교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다. 선생님은 자신이 방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 민준아. 뭐 하는 거야?"

민준이는 선생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선생님도 멍때려요?"

선생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이 정확히 뭐였는지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민준이에게 자꾸만 지적해온 '멍때림'이었다.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다.

"아, 그건... 나는 좀 다른 거야. 나는 잠깐 쉬는 거고..."

말을 하다가 멈췄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지 느껴졌다. 민준이는 자신을 향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앉아봐."

민준이가 조심스레 옆의 의자에 앉았다. 선생님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선생님도 구름을 봤어. 아까 구름이 자꾸 모양이 바뀌는데, 그게 신기해서 한참을 봤어. 그게 멍때리는 거겠지?"

민준이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네! 저도 그래요. 구름을 보면 자꾸 판생각에 빠져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저한테는 멍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자신도 방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에게는 그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꾸짖었다. 선생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구름을 보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멍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구름을 본다면, 그건 멍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좋은 생각 말이야."

선생님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생각이 들었다. 교과서에 나온 '집중'의 정의에만 맞추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민준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봐. 친구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어때?"

민준이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는 이지훈과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때는... 그때는 친구 말을 들어야 해요."

"맞아. 그때는 구름을 봐도 안 돼. 친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또는 쉬는 시간에 구름을 보며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거야. 선생님도 방금 그걸 느꼈거든."

선생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둘 다 말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선생님의 깊은 깨달음과 민준이의 안도감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선생님이 너를 잘못 이해했어."

"아니에요. 선생님도 구름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선생님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이 아이의 순수함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는지 신기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의 상상력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함께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구름 일기를 써봐도 괜찮을까요?"

민준이의 질문에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놀랐다. 이 아이가 자신의 비밀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구름을 본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낀 걸까.

"구름 일기? 너도 써?"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만의 세상에서요. 그게 좋아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그것을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다. 이 아이와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자신도 함께 변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민준이의 상상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선

교무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오후 3시,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 김지혜는 한 시간 동안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학급 통신문, 학부모 상담 기록, 다음 달 수학여행 계획서. 손가락은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머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어제 박선영과의 통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아이의 집중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설명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조언했는지.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김지혜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교무실은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학생들의 목소리도 없고, 다른 선생님들의 발걸음 소리도 없었다. 오직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흰색과 회색이 섞인 구름들이 마치 목화처럼 뭉쳐 있다가 조금씩 흩어졌다. 저 구름이 뭔가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끼리? 아니면 성? 아니다, 저건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보인다. 손가락이 하나씩 펼쳐지는 모양으로.

김지혜는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름이 변해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1분, 2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이 조용해졌다. 가슴에 맺혀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선생님도 멍때려요?"

김지혜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민준이가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몸이 문틀에 비해 더 작아 보였다. 그 아이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 민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구름 보고 있으신 거 봤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교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곳이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김지혜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구름 봐요. 매일."

"그래? 뭘 보니?"

"저건 용이에요. 날개가 있어요. 저기 봐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지혜는 그 방향을 따라 봤다. 정말로, 그 구름은 용처럼 보였다. 길게 늘어진 몸과 날개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

"아, 정말이네. 용이다."

"그리고 저건 성이에요. 여왕이 사는 성."

"여왕이?"

"네. 저 여왕은 구름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지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이 멍때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구름을 보면서 뭘 생각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요.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구름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렇구나."

김지혜는 다시 구름을 봤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수증기의 응결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상력이 담긴 캔버스처럼 보였다.

"선생님은 왜 구름을 봤어?"

"음... 피곤했거든. 그래서 그냥 잠깐 쉬려고."

"멍때리면 피곤이 풀려요?"

"그런 것 같아. 지금 기분이 훨씬 나아졌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동안 그녀는 민준이의 멍때림을 문제로 봤다. 고쳐야 할 나쁜 습관으로.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집중력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었다.

"민준아, 선생님이 너한테 잘못했어."

"뭐가요?"

"너를 자꾸 혼냈잖아. 멍때리면 안 된다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구름을 봤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하는 거더라.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럼... 더 이상 혼내지 않으세요?"

"음... 그건 좀 다른 거야. 수업 중에는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하잖아. 그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알았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구름을 봤다. 이번엔 김지혜도 함께 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름이 변해가는 모습을 따라갔다.

김지혜는 생각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모든 학생을 같은 틀에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아이의 눈빛에 있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 눈빛에.

"민준아,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너는 왜 구름을 보는 걸 좋아해?"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찾는 것처럼.

"왜냐하면... 구름은 항상 달라져요. 같은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요."

"새로운 이야기?"

"네. 어제의 구름과 오늘의 구름이 달라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김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것이 창의성이었다. 상상력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면서.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구름을 봐.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그게 너의 멋진 능력이야."

"정말요?"

"응. 근데 하나만 기억해. 친구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구름보다 친구를 봐야 해. 알겠지?"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아마도 이지훈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친구한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김지혜는 민준이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럼... 친구가 용서해 줄까요?"

"글쎄. 그건 친구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너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민준이는 다시 창밖을 봤다. 이번엔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 저 가봐도 돼요?"

"응. 가. 그리고 민준아?"

"네?"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그 상상력을 절대 잃지 말아. 알겠지?"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교무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김지혜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그녀도 다시 창밖의 구름을 봤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그 구름 속에 누군가의 상상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지금 이지훈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까. 그 친구와의 우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민준이의 손에 달려 있었다.

6

나만의 규칙

나만의 규칙

용기 있는 사과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던 민준은 계단 앞에서 멈춰 섰다. 지훈이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난주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과 나눈 대화 이후로, 민준은 자신이 지훈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 날 지훈이가 용기 내어 꺼내려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민준은 자신의 무관심함이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상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지훈이를 찾아다녔다. 운동장 한쪽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지훈이를 발견했을 때, 민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훈이가 자신을 보고 고개를 돌릴까봐,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을까봐.

"지훈아."

민준이 조용히 불렀다. 지훈이는 몸을 경직시키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뭐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벤치 옆에 서서 말을 꺼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지훈이는 여전히 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민준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날 너가 나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창밖 구름만 봤어. 너를 무시했어. 그리고 그게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난 도서관에서 깨달았어."

지훈이가 천천히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넌 항상 그래. 나 얘기할 때 안 들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기분이 들어."

"알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나빴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이었다.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깨달았어. 멍때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봐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너를 안 봤어. 너의 목소리도 안 들었어."

민준은 벤치에 앉았다. 지훈이와 같은 높이에서 말을 이었다.

"그날 너가 뭘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들을게. 진짜로."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전 자신의 용기가 꺾였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달랐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왜? 지금 얘기해줘. 제발."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훈이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며칠 동안 쌓여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너 진짜 미안한 거야?"

"응. 진짜야."

"약속해. 앞으로 내 얘기할 때 판생각 안 하고 들어줄 거?"

민준은 잠깐 생각했다. 자신의 상상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훈이가 자신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이었다.

"응. 약속할게. 너한테 중요한 얘기 있을 때는 내가 꼭 들을게. 구름도 잠깐 잊을 테니까."

지훈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완전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 진짜 궁금해. 그날 뭘 얘기하려고 했어?"

지훈이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뢰가 더 많아 보였다.

"음... 사실 내가 비밀이 있었어. 근데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 비밀이 뭔데?"

"그건... 아직 못 말해. 근데 너랑 다시 친해지면 그때 얘기해줄게. 약속."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가 자신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친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운동장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었지만, 이번에 민준은 그것을 보면서도 지훈이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지훈아, 고마워. 날 다시 봐줘서."

"응. 그리고 민준, 너는 멍때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가끔은 나도 봐줘. 알지?"

"알았어. 꼭 그럴게."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멍때림과 경청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상상력을 지키면서도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자신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줄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생각 구름 규칙 만들기

민준은 도서관을 나서며 가슴을 졸이며 걸었다. 이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멍때림과 경청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의 구름을 보고 싶은 마음과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꾸만 충돌했다.

그 날 오후, 민준은 교실에 들어가다가 김지혜 선생님을 마주쳤다. 선생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평소의 엄격함과 달랐다. 마치 민준 자신처럼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민준은 선생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멍때리고 계세요?"

김지혜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학생에게 지적당한 것 같아 어색했지만, 곧 그 질문 속에 담긴 순수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아, 민준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가끔 그래. 특히 피곤할 때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

그 말은 민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생님도 멍때린다니. 그렇다면 멍때림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그런데 민준아, 선생님이 너한테 멍때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고 싶어? 멍때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중요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야.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이미 이지훈과의 일로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구름도 보고 싶고, 친구 말도 들어주고 싶은데..."

김지혜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완전히 달랐다.

"그게 바로 너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야.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 너는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야. 그 능력을 버릴 필요는 없어. 대신 언제 구름을 봐야 하고, 언제 친구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는 거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이 찾던 답이었다. 선생님은 계속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마음껏 구름을 봐도 괜찮아. 그건 너의 뇌가 필요로 하는 휴식이니까. 하지만 친구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구름을 잠깐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수업 시간은 정말 어려웠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만 창밖으로 눈이 가곤 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다 힘든 건 아니었다. 과학이나 국어 시간에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다.

"선생님, 그럼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정해야 해. 너는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음... 국어 시간이요. 선생님이 책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렇지. 그럼 국어 시간에는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른 과목은 어때?"

"수학은... 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혹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면서 집중하면 어때요?"

김지혜는 그 대답에 놀랐다. 민준이가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너만의 방법이니까."

그 순간, 최서연 사서 선생님이 교실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민준이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있군요. 좋은 일이에요."

민준은 최서연 선생님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사서 선생님! 저 지금 멍때림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구름은 언제나 하늘에 있잖아. 그런데 구름을 보는 시간과 친구의 말을 듣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면 어떨까?"

최서연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창밖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 10분 동안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서 구름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일기로 써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너의 상상력도 살리고, 다른 시간에는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제안은 정말 좋았다. 자신의 멍때림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였다.

"정말요? 그럼 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구름을 봐도 돼요?"

"물론이지. 그게 너를 위한 시간이니깐. 대신 그 시간에 본 것들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너의 상상력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김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아, 너는 이제 알았잖아. 멍때림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게 너만의 규칙이야."

민준은 두 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자신만의 규칙. 그것은 단순히 '멍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상력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규칙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규칙을 실제로 지켜 보는 게 중요해. 쉬운 일은 아닐 거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이미 친구를 위해 노력했으니까."

최서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자신의 규칙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구름을 보고, 수업 시간에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면서 집중하고,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눈을 맞추고 귀 기울이기.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까. 내일 쉬는 시간, 민준은 정말로 도서관에 가서 구름을 관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는 것이 정말 집중에 도움이 될까. 더 중요한 것은, 이지훈과의 대화에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을까.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규칙을 만드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규칙의 첫 적용

수학 시간이었다. 김지혜 선생님이 칠판에 분수 문제를 적으며 설명하고 있었고, 민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실제로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오늘따라 구름이 특별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흰색이 회색과 섞여 있었고, 그 모양이 자꾸만 변했다. 아까는 용이었는데, 지금은 성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했다. 민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 구름 위에 누가 살까. 혹시 구름 왕국이 있을까. 왕국의 왕은 어떤 모습일까.

"민준아!"

민준의 몸이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그 톤이 담겨 있었다. 실망한 톤.

"네, 선생님."

"칠판을 봐야지, 창밖을 봐?"

민준은 고개를 내렸다. 자신의 무릎을 바라봤다. 엄마도 이렇게 말했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자신의 규칙은?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봐도 된다고 했는데, 수학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서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명때림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규칙도 떠올랐다.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보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중요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명때리지 않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칠판을 바라봤다. 분수가 보였다. 2분의 1. 4분의 3.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마치 물에 잠긴 귀를 뚫고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눈을 크게 떴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자신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구름을 볼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야.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그 사이 민준의 시선이 창밖으로 흘러나갔다가 다시 칠판으로 돌아왔다. 여러 번. 마치 공을 튀기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 공을 잡을 수 있었다.

수학 시간이 끝났다. 김지혜 선생님은 민준을 바라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점심시간이었다. 민준과 이지훈은 교실의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이지훈이 입을 열었다.

"민준, 어제 봤어? 그 고양이 영상. 진짜 웃겨."

"응."

"응? 뭐가 응이야. 들었어?"

민준은 밥을 씹고 있었다. 이지훈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밝았다. 뭔가 자신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 눈빛. 민준은 자신의 규칙을 떠올렸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집중하기. 정말 중요한 규칙이었다.

"미안해. 다시 말해줄래?"

이지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시작했다. 고양이가 어떻게 했는지, 왜 웃겼는지, 그 영상이 몇 번이나 재생되었는지. 민준은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이지훈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 그의 손짓을 봤다. 그의 눈빛을 봤다. 그리고 느꼈다. 친구가 자신과 뭔가를 나누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웃겨. 민준도 봐야 해."

"응, 나중에 봐야겠다."

이지훈이 웃었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민준은 자신의 규칙이 맞다는 걸 느꼈다. 멍때림도 좋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좋았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국어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민준은 책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이 보였다. 구름이 보였다. 아까와는 다른 구름이었다. 더 희미했다. 마치 사라져가는 꿈처럼.

민준의 손가락이 책의 페이지를 꼭 눌렀다. 자신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야. 그리고 그 신호가 먹혀들었다. 민준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자신이 그 구름을 놓쳐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구름을 볼 수 있으니까. 자신의 규칙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되자 민준은 창밖으로 나갔다. 아니, 창가로 갔다. 그리고 구름을 봤다. 아까 본 희미한 구름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구름이 떠 있었다. 그것도 좋았다. 항상 새로운 구름이 있다는 것. 항상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민준아, 뭐 해?"

이지훈이 옆에 섰다. 민준은 이지훈을 바라봤다.

"구름 봐. 저 구름 봐. 뭐 같아?"

이지훈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음... 코끼리 같은데?"

"오, 맞다! 코끼리다!"

둘은 함께 구름을 봤다. 함께 상상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이것도 좋았다. 혼자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상상하는 것도 정말 좋았다.

민준은 자신의 규칙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도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 아직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딴생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은 알았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규칙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저녁이 되었다. 민준은 집에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다. 사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빴다.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준은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의 규칙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일은 어떨까. 모레는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은.

민준은 알았다. 완벽한 규칙은 없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만든 규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자신의 방이 뭔가 달라 보였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다. 민준은 다가갔다. 그것은...

7

엄마의 발견

엄마의 발견

우연히 발견한 일기

박선영은 민준이의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먼지를 털어냈다. 책상 위에 흩어진 필기구들을 모으고, 침대 밑에 굴러간 양말들을 주워 담으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따라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이 몸을 짓누르곤 했다. 직장에서의 업무, 민준이의 학교 문제,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선생님과 통화들—모든 것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정신 좀 차려야지. 이 아이가 정말..."

박선영은 중얼거리며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들을 일렬로 정렬하고, 책 사이에 끼어 있던 종이를 꺼냈다. 그때였다. 연한 파란색 표지의 작은 노트가 책장 뒤쪽에서 떨어져 나왔다. 박선영은 그것을 집어 들었다. 낡은 표지에는 어린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구름 관찰 일기'

박선영의 손이 멈췄다. 구름 관찰 일기? 민준이가 이런 걸 쓰고 있었나? 호기심이 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구름의 모양을 따라 그린 스케치였는데, 그 옆에는 민준이의 필체로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하늘의 구름이 거대한 용으로 변했다. 그 용은 구름 속에서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고, 그의 날개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붙어 있었다. 용이 날개를 펼칠 때마다 하늘 전체가 금색으로 물들었다.'

박선영은 읽으면서 눈을 깜빡였다. 이게 민준이가 쓴 글이 맞나?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의 구름은 할아버지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하늘 전체에 퍼져 나갔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다 구름이 흩어지면서 할아버지도 사라졌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웃음은 남아 있었다.'

박선영의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각 페이지마다 구름의 그림과 함께 민준이의 상상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날은 구름이 자신을 데려갈 배가 되었고, 어떤 날은 춤을 추는

요정들의 나라가 되었다. 어떤 날은 구름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 엄마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했고, 선생님도 수업 중에 멍때렸다고 했다. 하지만 구름은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 구름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름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래서 나는 구름을 본다.'

박선영은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말인가?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놓고 계속 읽었다.

'멍때림은 나쁜 게 아니다. 멍때림은 나의 상상이 자라는 시간이다. 멍때림은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다. 멍때림은 나를 나로 만들어 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구름을 본다. 그리고 계속 상상한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그 구름들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그 구름들이 민준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순간, 박선영은 자신이 그동안 민준이를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깨달았다. 선생님의 전화, 자신의 질책,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강요들. 모든 것이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었던 것이다.

박선영은 다시 일기장을 집어 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도 구름을 본다. 내일도 상상한다. 그리고 내일은 엄마와 선생님이 내 구름을 이해해 줄까?'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은 자신과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자신은 아들을 고치려고만 했다. 아들의 마음을 듣지 않고, 아들의 상상을 부정하고, 아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다.

박선영은 천천히 일기장의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읽었다. 각 글귀마다 멈추고, 각 그림마다 오래 바라봤다. 아들의 마음이 이 페이지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창밖의 구름은 여전히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박선영은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자신도 한 번 멍때려 볼까? 혹시 자신도 아들처럼 구름 속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은 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박선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 일기장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자신을 이해해 달라는, 자신을 받아달라는 간절한 편지였다.

그리고 박선영은 깨달았다. 민준이가 단순히 멍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통의 방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선영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뭔가 더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고 조심스러운 글씨로.

'엄마가 이 일기를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도 내 구름을 볼 수 있을까?'

상상력의 파노라마

박선영은 민준이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공책을 집어 들었다. 표지는 여러 번 접혔는지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헐어 있었다.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첫 장을 펼쳤을 때, 박선영의 눈이 점점 커졌다.

'2월 14일. 오늘 구름이 목도리처럼 하늘을 감싸고 있었다. 회색 목도리 안에는 누군가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혹시 하늘도 추워하는 걸까? 구름이 하늘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까?'

박선영은 글을 읽으며 멈췄다. 이것이 자신이 알던 민준이가 쓴 글일까? 수업 시간에 멍때린다고 선생님께 혼나던 그 아이가?

페이지를 넘겼다. 그 다음 날짜의 일기도, 그 다음 날짜의 일기도 마찬가지였다.

'2월 21일. 구름이 코끼리 모양이었다. 코끼리는 왜 자꾸 물을 뿌릴까? 혹시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물놀이를 좋아하는 걸까? 엄마는 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코끼리는 물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박선영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글들은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민준이의 영혼이 담긴 것이었다.

'3월 5일. 오늘 구름이 성을 지었다. 높은 탑이 있고, 깊은 해자가 있고, 왕좌도 있었다. 그 성에는 누가 살까? 혹시 외로운 왕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을까? 나는 그 성에 사는 왕이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세며 꿈을 꾸다고 생각한다!'

박선영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민준이가 학교에서 멍때린다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것을 고쳐야 할 나쁜 습관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는 그런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3월 18일. 구름이 손가락 모양이었다. 손가락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혹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혹은 그 누군가는 나 자신일까?'

박선영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멍때리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흐르고 있었던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말인가?

다시 일기장을 집어 들었다. 더 읽고 싶었다. 민준이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다.

'4월 2일. 구름이 눈물 모양이었다. 하늘이 우는 걸까? 아니면 하늘이 웃고 있는 걸까? 엄마는 눈물이 슬픔의 표현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기쁨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눈물은 감정이 너무 커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박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넘어갔다. 최근의 일기들이었다.

'4월 25일. 오늘 지훈이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구름을 봤다. 지훈이가 상처받은 것 같다. 내가 지훈이를 상처 주었다. 멍때림이 나쁜 건가? 선생님은 그렇다고 했다. 엄마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멍때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멍때림은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이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까?'

박선영은 책을 내려놓았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껴졌다. 자신은 민준이에게 "집중을 해야지, 왜 자꾸 딴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자신은 민준이의 멍때림을 문제로만 봤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멍때림이 친구를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월 3일. 나는 지훈이에게 사과했다. 지훈이는 나를 용서해줬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나에게 말씀해주셨다. 멍때림도 좋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보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고,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규칙 말이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5월 10일. 나는 내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만든 규칙이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만든 규칙도 아니고, 엄마가 만든 규칙도 아니다. 내가 만든 규칙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칙 덕분에 나는 멍때림도 할 수 있고, 친구도 소중히 할 수 있다. 멍때림은 나쁜 게 아니었다. 다만 때를 알아야 하는 거였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니.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그 아이에게 무엇을 했는가?

박선영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 자신의 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

박선영은 다시 일기장을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로 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읽을 것이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2월 14일. 오늘 구름이 목도리처럼 하늘을 감싸고 있었다...'

박선영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각 글자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각 문장마다 민준이의 마음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선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밤이 깊어갔다. 박선영은 여전히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박선영은 민준이의 방 문을 열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박선영은 다짐했다. 내일은 다를 것이다. 내일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민준이를 지지하는 엄마가 될 것이다. 그 아이의 '멍때림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아이의 상상력을 응원하는 엄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한 박선영도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깨달음이 민준이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박선영은 일기장을 다시 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내가 만든 규칙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자꾸만 박선영의 마음에 맴돌았다. 민준이가 만든 규칙.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규칙을 인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일까?

박선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구름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구름들 속에는 민준이의 상상력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 상상력을 함께 볼 수 있을까?

엄마의 따뜻한 지지

박선영은 민준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구름 관찰 일기'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처음엔 그저 학교 숙제인 줄 알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굳어졌다가 점차 부드러워졌다.

'3월 15일. 오늘 수업 시간에 본 구름은 마치 누군가의 손이 하늘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내가 멍때린다고 했지만, 나는 멍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다. 구름이 어떻게 변할지, 그 구름이 어디로 갈지, 그 구름이 무엇이 될지 생각하고 있었다.'

박선영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페이지마다 민준이의 손글씨로 가득 찬 구름 스케치와 함께 적힌 생각들이 있었다. 그 글들 속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들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4월 2일. 엄마가 또 내게 집중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집중하고 있었다. 구름에 집중하고 있었다. 왜 구름을 보는 것은 집중이 아닐까? 왜 책만 봐야 집중일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박선영은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들린 일기장이 무거워 보였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떠올랐다. '집중해야지', '왜 자꾸 딴생각을 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 일기장에 적힌 민준이의 말들을 읽으니, 자신이 놓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4월 28일. 오늘은 지훈이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구름을 봤다. 지훈이가 상처받은 것 같다. 나는 멍때림이 나쁜 건가 싶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은 멍때림도 중요하고, 친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둘 다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박선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민준이가 직접 만든 규칙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의 멍때림 규칙'

1.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본다.
2.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3.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눈을 맞추고 듣는다.
4.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 본 구름을 생각하며 상상한다.
5. 이 규칙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킨다.'

박선영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열 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니.

일기장을 계속 읽으며 박선영은 민준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규칙을 지켜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그 규칙들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민준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자신은 민준이에게 뭘 해줬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선생님의 말을 전해주며 집중하라고 다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저녁을 먹고 거실에 나온 것 같았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또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부드러웠다.

"응, 엄마."

박선영은 민준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이거 봤어?"

"응. 정리하다가 찾았어. 미안해. 너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박선영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민준이가 자신의 규칙을 적어놓은 페이지였다.

"이거 봤니? 넌 정말 멋진 규칙을 만들었어. 정말."

민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의 눈이 축축해 보였다.

"엄마는 넌 멍때린다고만 생각했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일기를 읽으니깐... 넌 멍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겠어."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넌 혼자서 이 규칙을 만들었어. 친구도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도 들으면서 말이야. 넌 정말 대단해. 정말 멋진 아이야."

민준이의 눈도 촉촉해졌다. 엄마가 자신을 이해했다. 자신의 구름 관찰 일기를 읽고, 자신의 멍때림 규칙을 읽고, 자신을 이해했다.

"엄마... 나 정말 멍때리는 게 아니었어. 나는..."

"알아. 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소중한 거야.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박선영은 민준이를 안았다. 민준이도 엄마를 안았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느낄 뿐이었다.

한참을 안고 있던 박선영이 민준이를 떨어뜨렸다.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규칙을 지키는 데 말이야.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 넌 이미 그걸 하고 있잖아."

"응. 엄마."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는 엄마도 알았으니까. 넌 멍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고, 그건 정말 멋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다. 엄마가 자신을 이해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박선영은 민준이의 옆에 누워 천장을 함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음... 오늘 본 구름 말이야. 그 구름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그 구름이 어디로 갈 것 같아?"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아마 저 멀리 산 너머로 갈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구름들을 만날 거야."

박선영은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 구름들은 뭘 할까?"

"함께 춤을 춘다고 생각해.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계속 이동하다가, 어느 날은 비가 되어 내려올 거야."

박선영은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 보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그런데 문득 박선영은 생각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은 여전히 민준이의 멍때림을 문제로 볼까? 아니면 이제 달라질까? 박선영은 일기장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내일 학교 가서 수업 중에 창밖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는 엄마의 질문을 생각해봤다.

"글쎄... 아마 선생님 말씀을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내 규칙이니까."

"그래. 그런데 혹시 힘들면?"

"그럼 쉬는 시간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에 구름을 봐야지."

박선영은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안심했다. 자신의 아들은 이미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박선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했어. 정말 멋진 규칙이야. 그리고 엄마가 너를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거실의 텔레비전은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박선영과 민준이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 들었다.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내일 학교에서 민준이가 정말 자신의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은 민준이의 변화를 봐줄까? 특히 수업 중 창밖으로 시선이 닿을 때, 민준이는 과연 자신만의 규칙을 떠올리고 다시 선생님에게로 시선을 돌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8

생각의 심표, 소통의 약속

생각의 침표, 소통의 약속

수업 시간의 작은 변화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국어 수업이 한창이던 교실이였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을 향해 있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제 본 구름은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보였는데, 오늘의 구름은 어떤 모양일까.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빠져들었다.

김지혜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손짓을 섞어가며 문장의 주제를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다. 그의 눈은 창밖의 구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 구름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구름 나라의 왕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귀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수업 내용이 아니었다.

"민준아!"

민준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교실 전체의 시선이 한순간에 자신에게로 쏠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선생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고, 그 표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또 멍때리고 있었나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솔직하게 구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여러 번 혼난 후였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수업에 집중해야지요. 이렇게 자꾸 딴생각을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주 이지훈과의 일이 떠올랐다. 친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창밖의 구름을 보며 멍하니 있었던 그 순간. 이지훈의 서운한 목소리. 그리고 돌아서는 친구의 뒷모습.

아, 맞다. 자신은 이미 배웠다. 멍때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칠판을 향해 서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자신이 만든 규칙을 떠올렸다.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보고, 중요한 순간에는 집중한다. 지금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선생님에게로 돌렸다. 창밖의 구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쉬는 시간에 보면 된다. 지금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장의 구조를 따라가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자꾸만 눈이 창밖으로 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규칙을 상기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선생님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이 구름을 보며 상상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이 수업에 몰입해야 했다. 이것도 자신의 일이었으니까.

수업이 진행되면서 민준은 점점 더 선생님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칠판에 쓰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졌다. 마치 구름을 보며 상상하는 것처럼, 문장의 의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민준은 자신이 선생님의 설명을 거의 모두 따라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뿌듯한 느낌인지도 함께 깨달았다. 멍때림도 좋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아니,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다.

종이 울렸다. 수업이 끝났다. 민준은 책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구름들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다. 이제 쉬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규칙에 따르면, 이제 구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에게로 걸어갔다. 선생님은 교탁에서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오자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 저 방금 수업 집중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도 깨달았을 것이다. 민준이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래요? 잘했어요, 민준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친구 이지훈을 만났다. 이지훈은 여전히 자신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쉬었다.

"지훈아, 미안해. 그리고... 이번엔 진심으로 들을게. 뭐 하던 거야?"

이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두 친구는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준은 진정으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정말로 이 규칙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특히 이지훈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자신은 과연 창밖의 구름을 외면하고 친구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함께 듣는 이야기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여전히 북적였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책상 위의 연필을 정렬하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연필의 끝을 맞추고, 다시 밀어서 정렬하고, 또 맞추는 반복.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신만의 의식이었다. 오늘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훈이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주의 일은 아직도 민준의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지훈이가 용기 내어 꺼내려던 중요한 이야기를 자신이 듣지 않았던 것. 창밖의 구름에 빠져 친구의 말을 외면했던 그 순간들.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과 나눈 대화 이후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멍때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마음을 열 때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민준은 지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훈이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두 친구 사이에 남아 있었다.

"민준아!"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가 자신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응, 지훈."

민준이 대답했다. 지훈이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번에... 내가 말하려던 거 있잖아. 기억해?"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지훈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이었다. 그 중요한 이야기. 지훈이가 용기 내어 말하려다가 자신이 듣지 않아서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

"응... 기억해."

민준이 천천히 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번엔... 진짜 들어줄 거야?"

그 한마디에 민준은 모든 것을 느꼈다. 지훈이가 얼마나 용감해야 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응. 진짜로."

두 친구는 교실 한구석으로 이동했다. 창문 근처의 작은 공간. 민준이 자주 구름을 바라보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눈은 창밖이 아닌 지훈이를 향해 있었다. 지훈이가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대."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사? 지훈이가 이 학교를 떠난다는 뜻인가? 민준은 반사적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자신을 멈췄다. 지훈이가 계속 말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엄마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은 지훈이의 모든 표정, 모든 움직임에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지훈이를 바라봤다. 이것이 경청이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넌... 나를 잊지 않을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

그 질문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지훈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 잊혀질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이 지훈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친구를 외면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지훈이의 팔을 잡았다.

"절대 안 잊어. 지훈이는... 내 최고의 친구야."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다. 눈물이 맺혔다.

"정말?"

"응. 진짜로."

민준은 지훈이의 눈을 계속 마주쳤다. 그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자신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웃음을 지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민준."

"미안해. 저번에 안 들어줘서."

"괜찮아. 이제 들어줬으니까."

두 친구는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더 이상 그 구름을 따라가지 않았다.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만 집중했다. 이것이 멍때림과 경청의 차이였다.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지훈아, 혹시 이사 가게 되면...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지훈이가 밝게 웃었다.

"당연하지! 매주 만나자. 약속."

"응.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친구는 그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한, 어떤 거리도 그들을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의 연필들이 여전히 정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시 정렬할 필요는 없었다. 마음이 이미 차분했기 때문이다. 지훈이와의 대화가 마음속에 남겨놓은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은 갑자기 생각했다. 만약 지훈이가 정말로 이사를 가게 되면? 만약 새로운 학교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면? 만약 새로운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좋으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창밖의 구름처럼, 자신의 마음도 자꾸만 흔들렸다.

하지만 민준은 그 생각들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지훈이가 자신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지훈이를 믿어야 했다. 멍때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켜야 했다.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보고, 중요한 순간에는 집중하는 그 규칙을.

김지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민준은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다. 지훈이가 살짝 웃음을 지었다. 민준도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멍때림과 경청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상상력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이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또 다른 순간에 자신이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속에서, 민준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민준이의 생각, 세상의 균형

창밖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은 책상 위의 수학 문제지를 내려놓고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하얀 솜뭉치가 자꾸만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는 용이었는데, 지금은 성 같기도 하고, 또 다음 순간에는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민준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준은 구름을 바라본 지 겨우 3초 만에 시선을 다시 문제지로 돌렸다. 손가락이 문제의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어제 지훈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지훈이의 목소리, 그 안에 담겨 있던 불안감. 자신이 듣지 않았던 그 중요한 말들.

'멍때리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들어야 할 순간을 아는 건 중요해.'

도서관에서 최서연 사서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마치 나침반처럼,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민준은 문제를 풀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자신의 손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숫자들이 맞아떨어질 때의 그 희미한 쾌감. 그것도 나름의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이제 다르게 흘러갔다. 아침 조퇴 때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수업 시간에는 손을 들어 질문도 했다. 김지혜 선생님은 민준을 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를 민준도 느낄 수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민준은 창가로 나갔다. 그리고 구름을 봤다. 마음껏. 아무도 말리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은 민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마치 물이 필요한 식물처럼, 햇빛이 필요한 나무처럼. 민준의 마음도 그런 휴식을 필요로 했다.

지훈이는 민준 옆에 앉아 있었다. 요즘 지훈이의 표정은 밝아졌다. 이사 걱정도 많이 덜었다고 했다. 엄마 아빠가 새 집을 잘 봤다고 했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친구를 잘 사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정말로 듣고 있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준의 가슴이 따듯해졌다. 그것은 칭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이 민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에 가는 길에 민준은 엄마를 만났다. 박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요즘 좀 나아 보이네.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수업도 재미있고."

"그래? 다행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민준은 엄마가 자신의 구름 관찰 일기를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읽은 후로 뭔가 달라졌었다. 엄마의 눈빛이, 말투가. 마치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박선영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민준은 엄마를 바라봤다.

"뭐가요?"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너는 멍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어."

민준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큰 손을 감싸안았다.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다. 수학 문제를 푼 것. 지훈이의 말을 들은 것. 선생님이 자신을 바라본 눈빛. 엄마의 사과. 모든 것이 작은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다.

멍때림과 집중. 그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것들은 마치 낮과 밤처럼, 봄과 겨울처럼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완성되지 않는 것들.

민준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쉬는 시간에는 구름을 본다. 중요한 순간에는 귀를 기울인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한다. 하지만 마음이 필요로 할 때는 잠깐 멈춘다. 그것이 민준의 규칙이었다.

그 규칙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날은 흔들렸다. 하지만 민준은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규칙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었다.

창밖의 구름이 다시 흘러갔다. 민준은 그것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바라봤다.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숨을 느끼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현재의 순간을 느끼면서 상상을 했다.

그것이 민준이 찾은 균형이었다.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방법. 멍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집중하는 것도 좋다. 그 둘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꿈속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구름 위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선생님의 격려도, 엄마의 따뜻한 손길도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민준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왜 멩때리면 안돼요?

저자: 장우일

출판사: 지혜의서가

발행일: 2026년 07월 04일

전자책 정가: 15,500원

ISBN: 발급 예정

저작권: © 2026 장우일.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및 편집 구성은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의 기획·검수·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